

**유치부**

예수님의 탄생\* 조희영\*

**1~2학년**

친구들이 함께해서 즐거웠어요\* 김두심\*

**3~4학년**

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\* 김지선\*

**5~6학년**

성탄 나무를 만들어요\* 이윤희\*

**중등부**

강생의 신비\* 노경애\*

**고등부**

예수님의 삶\* 손시내\*



재미있는  
**교리교안\***

재미있는 교리교안\*



# 예수님의 탄생

조희영 · 마리아 | 가톨릭 디다케 교안 연구원

## 학습목표

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안다.

준비물 : 배경 그림, 대림초, 나팔, 동방박사 의상, 동방박사 선물, 별, 양  
관련 성서 : 루가 2, 1-20

## 선생님들께

이 성탄극본은 들뜨기 쉬운 사회의 성탄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, 아기 예수님 탄생의 참 의미를 묵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한 것입니다. 관련 성서에 충실하여 만든 것이니, 본당 사정에 따라 내용이나 인물들을 늘리거나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직접 대사를 하며 연극을 하면 어수선해질 수 있으니 대사를 먼저 녹음해 놓고 아이들은 그에 맞춰 동작만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.

## 시작 기도

우리와 같은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 찬미와 감사드립니다.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세요.

## 도입

성탄절이 되니 참 기쁘죠?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연극으로 꾸며 보려고 해요. 등장인물도 많고 연극을 완성하기 위해 도울 사람도 필요하니 우리가 한 가지씩 역할을 맡으면 돼요. (교사는 아이들이 사이좋게 배역을

나눌 수 있도록 지도한다.) 모두 다 맡았으면 우리 함께 연극을 시작해 볼까요?

## 전개 - 극본

### 준비물

1. 배경 그림-마리아 방, 엘리사벳 집, 길거리, 여관 앞 길, 들판
  2. 소품-대림초 4개, 나팔, 등장인물의 의상, 동방박사의 선물, 별, 양
- ※배경 그림은 교육국 홈페이지 디다케 자료실에도 올려 놓을 예정이니 적절히 사 용하십시오. 음악은 교사가 적당한 것으로 대체하여도 좋습니다.

## 등장인물

해설자, 초잡이 4명, 요셉, 마리아, 엘리사벳, 군인, 여관 주인 1, 2, 3, 동방박사 3명, 천사들, 목동들

## <1막>

막이 열리면, 해설자에게만 조명.

음악 : 구세주 보내 주소서(가톨릭성가 90번)

해설자가 대림절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초잡이가 대림초를 들고 입장한다.

해설 : 우리는 대림절 동안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했어요. 첫 주에는 설레는 마음으로 (초잡이 1 입장), 둘째 주엔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(초잡이 2 입장), 셋째 주엔 고요한 마음으로(초잡이 3 입장), 넷째 주엔 곧 오실 아



기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(초잡이 4 입장) 기다렸습니다. 우리의 마음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예수님, 빨리 오세요.

해설이 끝나면 초잡이들은 조용히 퇴장한다.

해설 : 갈릴래아의 나자렛이라는 동네에 마리아라는 아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. 마리아는 언제나 하느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아가씨로 다윗 가문의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.

마리아, 방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.



가브리엘 천사 : (기도하는 마리아의 주위를 날갯짓하며 한바퀴 돈 후, 마리아 앞에 선다.) 은총을 가득히 입은 아가씨.

마리아 : (깜짝 놀라며 천사를 쳐다본다.)

가브리엘 천사 : (마리아보다 높은 곳에 서서) 은총을 가득히 입은 마리아 아가씨, 기뻐하십시오.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.

마리아 : (당황해 천사를 바라보며)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십시오.

가브리엘 천사 : 마리아, 두려워하지 마세요. 당신은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. 이제 곧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세요. 그 아기는 위대한 분이 되어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입니다.

마리아 : 이 몸은 처녀입니다.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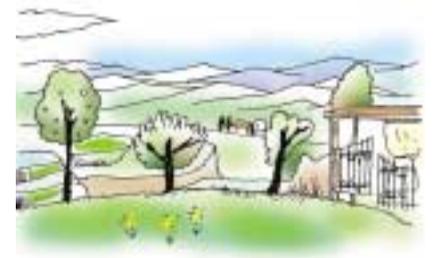
가브리엘 천사 : 성령이 당신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당신을 감쌀 거예요. 태어나실 그 거룩하신 아기는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.

마리아 : (무릎을 꿇는다.) 이 몸은 주님의 종이입니다. 지금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.

<제2막>

엘리사벳의 집

음악 : 임하소서 임마누엘(어린이 미사 116번)



해설 : 며칠 후 마리아는 유다 산골에 사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.

마리아 : (문을 두드리며) 엘리사벳 언니 계세요?

엘리사벳 : (기쁜 표정으로)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드님 또한 복되십니다.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 주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? 주님의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정녕 복되십니다.

마리아 :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구세주 하느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이 마음 설렙니다.

엘리사벳, 마리아의 짐을 받아 들고 마리아와 함께 안으로 들어간다.



<제3막>

길거리. 여러 사람들이 길을 거닐고 있다. 그 중에 요셉과 마리아도 있다.



해설 :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서 석 달 가량 함께 지내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집에 돌아온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아기 예수님의 탄생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. 그 무렵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가 호구조사령을 내렸습니다.

(효과음-나팔소리)

군인 : 모두들 들으시오! 모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등록하시오! (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이쪽저쪽을 보며 반복하여 외친 후 퇴장한다.)

요셉 : (힘없이) 집에 오는 길에 군인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소. 모두들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등록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

마리아 : 우리도 다녀오면 되지요.

요셉 : 당신 몸이 무거우니 걱정이 됩니다.

마리아 : 걱정하지 마세요, 갈 수 있어요. 어서 집을 챙겨서 다녀와요.

해설 :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레아 지방의 나자렛 동네를 떠나 유다 지방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. 베들레헴은 다윗이 난 고향이며 요셉은 다윗 왕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.

<제4막>

여관들이 보이는 길거리.



해설 : 베들레헴에 머무는 동안 마리아의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. 요셉과 마리아는 머물 곳을 구해야 했습니다.

요셉 : (여관 문을 두드리며) 계십니까? 누구 계세요?

여관 주인1 : 어떻게 오셨습니까?

요셉 : 빈방이 있나요?

여관 주인1 : 이거 어찌나, 빈방이 하나도 없습니다.

요셉 : (마리아를 부축하며 그 옆 여관으로 발걸음을 옮긴다.) 안에 누구 계세요?

여관 주인2 : (문을 열고 얼굴을 내민다.) 누구요?

요셉 : 하룻밤 쉬고 갈 방을 찾고 있습니다.

여관 주인2 : 방이 없으니 딴 곳으로 가 보시오.

요셉 : (다시 그 옆 여관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) 방이 다 찼으니 큰 일이네. (다른 여관 앞에 서서) 여보세요, 안에 누구 계십니까? 하룻밤 묵어가고 싶은데요.

여관 주인3 : 아이고! 산도가 계시군요. 이를 어찌나. 저희 집에 있는 방은 모두 찼습니다. 가만 있자..... 빈 마구간이 있긴 한데..... 괜찮으시겠습니까?

요셉 : 괜찮습니다. 거기라도 빌려 주십시오.

요셉과 마리아, 주인에게 감사 인사를 한 후 마구간 안으로 들어간다.



해설 : (해설자에게만 조명) 그날 밤 드디어 아기 예수가 탄생하였습니다.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포대에 싸서 구유에 눕혀 놓았습니다.  
 불이 꺼지면 '고요한밤 거룩한밤' (가톨릭성가 99번)이 조용히 흐른다.

<제5막>

들판. 세 명의 목동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다.

목동1 : 아이 놀려! 한 숨 잤으면 좋겠다.

목동2 : (하품 하며) 나도 놀려. 아함~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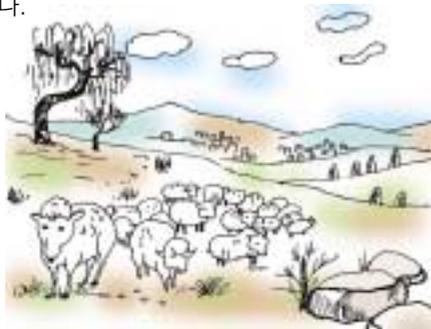
해설 : 그때 갑자기 밝은 빛과 함께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.

천사 : (두 팔을 날갯짓하며) 두려워하지 마라. 나는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. 이 마을에서 구세주가 탄생하셨다. 너희는 한 갓난아이가 포대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. 그분이 바로 구세주이시다.

목동들 : 우리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가 보자. 가서 주님께서 알려 주신 그 사실을 확인해 보자. (퇴장)

해설 : 그때 동방의 세 박사도 하늘의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고 있었습니다.

동방박사로 꾸민 어린이들이 나와 '동방박사 세 사람' (박경종 작사 정혜옥 곡) 1절과 2절을 부르며 율동한다.



정리

우리 친구들도 그 동안 예쁜 마음으로 예수님 맞을 준비를 잘 했지요? 그러니 목동들과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준비한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드려요. 아기 예수님께까지 들리도록 큰 목소리로 '기쁘다 구주 오셨네'를 함께 불러 볼까요? ('기쁘다 구주 오셨네'를 함께 부른다.)

마침 기도

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,  
 저희도 예수님처럼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는  
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.  
 예수님, 사랑합니다.

[관련 교리서]

예수님은 우리들의 친구입니다(광주대교구) / 은혜로운 만남(부산교구) / 친구 예수님(분도출판사)